

## 문화재용어사전의 구축 현황 및 번역보조도구로서의 활용성에 관한 제언

박 현 주  
(이화여대)

### 1. 서론

문화재 분야 번역은 단순히 문화재를 설명하는 차원을 넘어 해당 유산에 정체성을 부여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sup>1)</sup> 동 분야는 또한 목표 문화 내에서 등가어를 찾기 힘든 문화소의 번역 문제와 더불어 원문 자체가 난해한 용어로 점철되어 있어 번역이 더욱 어렵다(김도훈 2006; 정일영 외 2011; 최희섭 2008; Nam 2008). 이러한 중요성이나 번역자가 용어와 관련해 겪는 이중고에도 불구하고

---

1) 일례로 박현주(2013)는 고구려 고분 명칭을 중국어식(즉, 한어 병음)으로 음역할 경우 고구려를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의도치 않게 돕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문화재 분야 번역 시 단순한 의미 전달 차원을 넘어 이데올로기 및 지정학적 함의 등의 문제까지도 고려하는 의식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고 현재 번역 시 참고할 수 있는 문화재 분야 이중언어(bilingual) 전문용어 사전은 한정되어 있고<sup>2)</sup> 그 내용 또한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그 간접적인 결과로 오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난해한 용어의 정의 및 대응어를 찾아 시간 대비 번역 효율성도 크게 저하된다. 우켄티-아제흐(Nkwenti-Azeh 1998: 249)는 용어 은행(term bank)을 제정하게 된 동기를 논하며 전문 분야 번역(specialized translation)에서는 특히 언어 간 등가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들며 번역 시간의 60퍼센트까지도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런 사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그래도 상황이 나은 편이다. 많은 번역자가 기존에 출판되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서비스 중인 문화재 관련 용어 사전의 존재조차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문화재 분야의 글을 영어로 번역할 때 참고 가능한 이중언어 전문용어 사전을 소개하며 그 현황을 분석하고, 이 사전들이 번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고찰한 후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3장에서 보다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문화재 분야의 글을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용어 사전의 제목에 ‘문화재’ 대신 ‘문화유산’ 혹은 ‘유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각 용어의 정의에 따라 각 사전에 등재되는 표제어의 범위도 한정되는 바, 이들 용어 자체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main.jsp>)에 나와 있는 각 용어의 정의다.

- 문화유산(文化遺産):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 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2) 본고의 ‘3. 기존 문화재용어사전 현황’에서 분석한 사전들을 보면 모두 편찬 시기가 2000년대 이후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시대를 한정하지 않았음에도 공교롭게 모든 사전이 21세기 들어 제작되었다는 사실은 그 이전에는 번역사가 참고할 수 있는 문화재 분야 이중언어 전문용어 사전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면 현재는 내용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종이사전류는 물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사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후 논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중 많은 수가 진정한 이중언어 전문용어사전이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아직까지는 “한정적”이라 할 수밖에 없다.

- 문화재(文化財): ①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② 문화재 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민속 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말.
- 유물(遺物): 선대의 인류가 후대에 남긴 물건.

한편 ‘문화재보호법’<sup>3)</sup>은 ‘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이상의 정의에서 ‘문화유산’과 ‘문화재’가 정신적·물질적 혹은 유형·무형을 아우르는 데 반해, ‘유물’은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대상 범위가 더 협소함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유산’, ‘유물’을 모두 함께 대표하는 개념으로 ‘문화재’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문화재 용어사전의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번역과 관련하여 사전의 개념을 살펴본다.

## 2. 번역 지향 사전 관련 이론적 배경

부르하노프(Burkhanov 2004)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이상적(ideal)’ 이중언어 사전의 요건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에서 사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통념이 존재한다고 밝힌다.

- ① 이중언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은 곧 번역용 사전(translation dictionary)이다.
- ② 이중언어 사전에 제시된 등가어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단일 언어 사전은 각 어휘의 의미만을 정의하는 데 반해 이중언어 사전은 어의·화용론적 등가를 제공한다.

(Ibid. 17)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률 제11228호, 2012.1.26. 일부개정, 2012.7.27 시행.

이러한 통념으로 인해 번역 시 기존의 이중언어 사전이면 충분하며 번역용 사전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부르하노프(ibid)는 기존 이중언어 사전이 실제 번역 시의 필요를 전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이상적’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했음을 명시하며 진정한 의미의 번역용 혹은 번역 지향(translation-oriented) 사전을 만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SL, TL 대응어 간에 어의 및/혹은 화용론적으로 사소한 차이라도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번역으로 인해 과도한 자국화(domestication)가 일어날 경우 차용 전략을 선택한다.
- 표제어로든 상호참조(cross-referencing) 방식으로든 잠재적 등가(상위어, 유사 표현 등)를 많이 제공할수록 좋다. 번역가가 올바른 어휘 항목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TL 어휘 항목의 통어적 속성(언어, 속어 등),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Ibid. 26-31; 필자가 재정리)

결론적으로 번역 지향 사전은 각 어휘 항목의 대응어 제시 수준을 넘어 다양한 번역 단위를 고려해 개발 및 편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중언어 사전을 사전 사용자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한 알카시미(Al-Kasimi 1983)는 텍스트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산출용 사전의 표제어는 생산적 속성을 지녀야 하며 번역 시 해당 단어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형태론적, 통사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체계적 방식으로 의미를 구별해 주지 않을 경우 해당 사전은 적절한 등가어를 찾는 데 제대로 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번역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Ibid. 161).

한편 폴(Pohl 1989)은 번역 도구로서의 사전을 분석한 연구에서 슈체르바(Scerba)의 ‘능동적 사전(active dictionary)’ 개념을 소개한다. 외국어로 쓰인 텍스트의 수용 혹은 해독을 위한 수동적(passive) 사전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텍스트를 부호화(encoding) 혹은 산출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

으로 편찬된 이중언어 사전이 ‘능동적 사전’이다(Ibid. 129-31). 그는 또한 크로만(Kromann) 등과 슈체르바의 개념에 관해 수행한 선행 연구에서 “능동적 사전은 등가와 관련해 최대한 많은 문법적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반면 수동적 사전은 등가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도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크로만의 1984: 213, 폴 1989: 131에서 재인용). 이 논문은 또한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별다른 주해 없이 등가어를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은 사전 편찬에 있어서는 ‘죄악(deadly sin)’과 같은 것이라 비판한다(크로만 외 1984: 210, 폴 1989: 132에서 재인용).

폴(Ibid. 136)은 더 나아가 독일어-이탈리아어 이중언어 일반 사전을 사례로 들며 번역용 사전 편찬을 위한 개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먼저, 개정판을 편찬할 때는 새로운 어휘를 추가 수록하기보다는 기존 사전의 단점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을 권고한다. 일례로 표제어를 명확하면서도 일관된 방식으로 제시해 사용자 친화성을 높인다거나 기존의 부적절한 번역을 보다 적합한 번역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중언어 사전 편찬 시에 번역가와와의 협업을 시도하는 등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협업적 접근법을 시도한 드문 사례가 바로 2000년 발간된 『유통용어사전 *Analytical Dictionary of Retailing*』이다. 동 사전은 전문용어학자, 사전 편찬학자, 번역가 그리고 유통분야 전문가 간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번역용 사전<sup>4)</sup>으로 번역가의 ‘논변적 자율성(discursive autonomy)’을 상정한다(테머만과 긴트젠스 Termmerman & Geentjens 2010: 138-39). 즉, 번역해야 하는 용어 내지 어구가 동일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른 용어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는다면 번역자는 목표 언어로 대응되는 용어 또는 어구를 자율적으로 생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 사전은 소매 분야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체계적 구조에 따라 제시하며 용어 간의 어의적 관계 및 의미 간의 미묘한 차이까지도 기술한다.

한편 정보통신기기 및 인터넷의 보편화로 이제는 번역 과정에서 각종 소프

4) 『유통용어사전』의 저자 단셋(Dancette)은 서문 및 ‘사전 사용 설명서(EXPLANATORY NOTES)’에서 목표 독자층(Target readership)으로 번역가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또한, 경영대학원 뿐만 아니라 번역학 과정생 및 교수진도 사용자로 상정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트웨어 및 전자사전,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 툴(electronic translation tools)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툴을 범주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1980년대 초 멜비(Melby)에 의해 처음 이루어졌는데 그는 기능에 따라 범주를 구분했고, 그 이후 해당 툴의 사용으로 번역 과정이 자동화되는 정도에 따라 기존 번역 툴을 구분한 두 번째 모델이 등장했다(오스터물 Austermuhl 2001: 9-11). 그러나 이들 접근 방식을 통해서만 전문적으로 번역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제 환경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심도 깊게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따라 오스터물은 “각종 전자 툴을 번역 과정을 구성하는 한 요소이자 번역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하위 과정 동안 번역가를 지원하는 도구로 보아야 한다”는 ‘과정 지향(process-oriented)’ 접근 방식을 새로이 제시한다(Ibid. 11). 그는 이어 번역의 각 단계별로 필요한 능력,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툴의 기능이 달라진다고 전제한 후 단계별로 필요한 사전의 종류 및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Ibid. 13).

〈표 1〉 번역 단계별로 필요한 사전의 특징<sup>5)</sup>

번역 단계	필요한 사전의 특징
수용 (reception)	원문(source text)의 언어적 정보를 해독하기 위한 용어 데이터베이스나 전자사전
전이 (transfer)	전이 과정은 번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단계로 아직까지는 이 단계를 지원하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 이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번역용 특수 사전 내지 용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언어적, 백과사전적, 상호문화적 지식을 통합적으로 보여줘야 함.
형성 (formulation)	언어사전 등에서 보는 것처럼 용어 간의 통어적(syntagmatic) 관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야 효율적인 생산 툴로 사전이 기능할 수 있음. 전자사전 외에도 목표어(target language) 표현 확인 등을 위해 텍스트 코퍼스를 이 단계에서 활용할 수도 있음.

상기 논의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면 산출을 목적으로 하는 번역용, 혹은 번역 지향 사전은 단순히 대응어, 혹은 언어적 정보만을 제시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화용론적 정보, 문화적 측면에서의 정보 등 보다 포괄적인 정보

5) 오스터물(2001: 13-15)의 내용을 기반으로 필자가 표로 작성한 것이다.

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국내 문화재용어사전의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 3. 기존 문화재용어사전 현황

먼저 문화재 분야 번역을 하게 된 전문 번역가가 관련 분야 전문용어사전을 찾는 상황을 가정해 교보문고 홈페이지와 구글에서 ‘문화재’, ‘용어’, ‘용어사전’, ‘한영사전’, ‘용례’ 등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전’은 광의의 ‘사전’으로 종래의 종이사전류와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되는 온라인 사전류까지 아우르며 용례집, 시소러스, 데이터베이스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한다.

도출된 검색 결과 중 경인문화사의 『불교용어사전』처럼 그 범위가 문화재의 특정 분야에 국한하는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이중언어’ 사전이라 함은 적어도 표제어는 한국어로, 대응어는 영어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따라서 에듀씨코리아의 『한국문화유산 용어사전』처럼 문화재 전반을 다룬다 하더라도 한국어만을 사용하고 있는 단일 언어 사전류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박물관 포털 사이트인 ‘e뮤지엄’(http://www.emuseum.go.kr)에 연결된 국내 박물관 중, 용어 사전 혹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박물관을 먼저 조사하고, 그 중 국공립과 사립 박물관 두 곳을 임의로 선택하였다. 박물관별 분석 내용에서도 다루겠지만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형식적인 면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날 뿐 용어 사전의 서비스 내용이 오류 부분까지 동일하여 각 박물관이 거의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기와 같은 임의적 선택을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필자가 문화재청 재직 시절부터 지난 8년간 문화재 분야 번역을 하면서 참고해 온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영문용어용례사전』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의 경우 문화재청 내부 자

료로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본 연구를 통해 보다 많은 번역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개할 필요성을 느꼈으며, 나머지 두 사전은 문화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역사 및 한국학 분야의 기본 참고 자료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최소한 영문 대역어 항목이 존재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화재 분야 용어 사전 현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문화재 분야 용어 사전 현황

분류		사전명	정렬 방식	정의 기술	삽화 사진 <sup>6)</sup>	편저자	발간 연도
종이 사전	공공 기관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	분야별, 자모순	국문	X	문화재청	2000
		한국문화재용어사전	자모순	국문, 영문	△	한국국제 교류재단	2004
	민간	한국 역사·문화 용어 한영 용례	분야별, 자모순	X	X	최규정	2000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분야별	국문, 영문	O	시공테크	2002
온라인 사전	공공 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용어사전 <sup>7)</sup>	자모순	국문	X	국립중앙 박물관	.8)
		전쟁기념관 유물용어사전	자모순	국문	X	전쟁 기념관	2012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주제별	국문	X	국사편찬 위원회	2005
		한국학 영문용어용례사전	유형별, 출처별	국문	X	한국학중 앙연구원	2005
	민간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용어사전	자모순	국문	△	덕성여대	2003
		조선대학교 박물관 용어사전	자모순	국문	△	조선 대학교	2003

6) 사전에 삽화 내지 사진이 실리기는 하였으나 전체 표제어 대비 그 빈도가 매우 낮은 경우 ‘△’로 표시하였다.

7) 동 연구를 처음 시작한 2013년 6월 기준. 현재는 『소장품용어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8) 각 박물관 유물용어사전의 경우 정확한 편찬 연도가 나와 있지 않아 홈페이지 하단

### 3.1 종이사전류

#### 3.1.1 정부 및 공공기관 발행

##### ① 『(쉽게 고친) 문화재용어 자료집』(문화재청, 2000)<sup>9)</sup>

문화재청에서 발간한 『(쉽게 고친) 문화재용어 자료집』은 건축사, 고고학, 민속학, 미술사 네 분야에 걸쳐 총 1,176건의 표제어를 수록하고 있다(건축사 249건, 고고학 423건, 민속학 292건, 미술사 212건). 제목의 ‘(쉽게 고친)’이란 문구에서 암시하듯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용어가 그 대상으로 미시 항목 또한 그에 맞추어 분야, 순화대상용어, 순화 용어, 용어해설, 영문 표기로 구성되어 있다. ‘표기’라는 단어 때문에 혼동의 소지가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문 표기’ 항목이 번역 시 필요한 영문 대응어임을 알 수 있다.

##### ② 『한국문화재용어사전 *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한국국제교류재단, 2004)

‘일러두기’에 따르면 “문화재 관련 일반 도서나 문화재 안내문 등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건축 395건, 고고학 884건, 미술사 1,203건, 민속 400건 등 총 2,824건의 표제어를 실고 있다. 분야별 구분 없이 자모순으로 수록한 대신 해당 용어의 정의문 앞에 ‘건’, ‘고’, ‘미’, ‘민’ 식으로 각 분야의 첫 글자를 약호로 표시해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를 알게 했다. 각 표제어의 미시구조는 표제용어, 한자, 로마자표기, 분야 표시 약호, 국문해설, 영문 표기, 영문해설 순으로 되어 있다. 관련 유물의 사진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의 저작권 정보를 기준으로 발간연도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의 경우 저작권 정보에 구축 연도도 나와 있지 않아 ‘.’로 표시하였다.

9) 원래 소책자 형태로 발간되었으나 현재는 엑셀 형식의 전자파일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http://www.cha.go.kr>에 접속해 우측 상단 ‘통합검색’ 창에 띄어쓰기 없이 “쉽게고친문화재용어자료집”이라 입력하면 해당 자료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최초 형태를 기준으로 종이사전류로 분류하였다.

## 3.1.2 민간 기관 발행

① 『(국사·문화·관광 관련 분야의 전문인을 위한) 한국 역사·문화 용어 한영 용례』(최규정, 2000)

‘한국 역사·문화 용어 한영 용례’에 이어 ‘분야별 용어’, ‘기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세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다. 각 항목은 아래 예시와 같이 한글 표제어, 한자, 동의어, 영문 대응어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끈무늬(낙승문 絡繩紋, 승문 繩紋, 승목문 繩目文) : braid pattern; cord pattern

이 용례집은 저자가 ‘머리말’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0여 년이란 그리 짧은 기간 동안 수집하고 실제로 만들어 사용”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개인의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 일부 표제어의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자료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동의어를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위의 예시와 관련해 문화재청의 『(쉽게 고친) 문화재용어 자료집』에는 ‘승석문’과 ‘명석무늬’만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문화재용어사전』에는 ‘명석무늬’, ‘끈무늬’, ‘승석문’만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문장 속에서 사용된 용례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측면에서 용례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②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Korean Cultural Heritage Seen through Pictures and Names*』 (시공텍, 2002)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은 주제별 분류에 따라 총 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일한 내용과 구성으로 영문판 또한 나와 있다. 제1권은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궁궐, 전통가옥, 사찰, 성, 선사문화, 묘제, 건축을, 제2권은 공예, 민속, 복식, 과학, 악기, 서화, 문화일반을 다루고 있다. 이 사전의 탁월한 특징은 제목에서부터 그림 사전을 표방한 바에서 알 수 있듯 풍부한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이해도를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각 문화유산의 부분별 명칭에 대해서도 음역과 훈역을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 또한 국문판과 영문판의 페이지 구성이 동일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시 구조를 살펴보면 한글 표제어, 대응 한자어, 설명, 삽화(해당하는 경우),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3.2 온라인사전

### 3.2.1 정부 및 공공기관 운영

#### ①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한국학중앙연구원 ‘소개의 글’(http://www.aks.ac.kr/glossary/default.asp)에 따르면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편찬 사업은 “한국학 용어가 영어로 번역되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한국학 영문 용어를 표준화하는데 일조하고자” 2005년부터 200권 이상의 자료에서 7,000여 용례를 추출해 구축되었다. 한국학계는 물론 한국 문화 번역자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명기하고 있다.

크게 유형별, 출처별 2가지 분류로 구분되어 있으나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유형 분류는 다시 18가지 소유형(개념용어, 기관단체, 놀이, 동물, 문헌, 물품도구, 사건, 식물, 유물, 유적, 음식물, 의례, 의복, 인물, 작품, 제도, 지명, 행사)으로 나뉜다. 출처별 분류는 서적명 기준 A, B, C 순으로 정렬되어 각 서적에 대한 서지정보(서적명, 편저자, 역자(있을 경우), 출판사, 출판연도)를 보여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개의 글’에 따르면 각 표제어별로 그 미시구조가 “한글명(한자명), 분야/유형/시대, 한글정의, 문화관광부 표기, 매륀-라이샤워표기, 의미역, 용례문, 출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전과 용례문을 보여준다는 것이 이 사전이 다른 사전과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이다.

#### ②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국사편찬위원회, 2005)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http://thesaurus.history.go.kr/)의 ‘사업소개’에 따르면 이 시소러스 사전은 2001년부터 구축되어 2005년 12월말 기준 총 5만여 용어와 1만여 개의 인명·지명·서명·문화재 관련 단어를 서비스하고 있다. 문화재를 포함해 크게 17개 주제로 분류 체계(역사일반, 정치행정법제, 국방군사, 외교국제관계, 경제산업, 재정금융, 교통통신, 사회생활, 사회운동독립운동, 문화예술, 전통사상종교, 학술과학기술, 교육, 인명, 지명, 서명, 문화재)가 이루어져 있으며 검색 결과는 자모순으로 정렬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통합 검색 기능을 지원하며 각 용어 항목에 대해서는 용어 설명, 시대, 연도, 주제 분류와 같은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유의어, 상위어, 하위어, 관련어 등 용어 간 연관 관계를 보여주며 하이퍼텍스트 기능, 즉 특정 용어를 클릭해 다른 주제나 용어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문화재’ 분야와 관련해서는 5,012건이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으나 ‘청자도형연적’ 등 일부 표제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역만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국공립박물관 『유물용어사전』

국립중앙박물관은 홈페이지(<http://www.museum.go.kr/>) 상단의 ‘유물마당’ 메뉴 밑에 『유물용어사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10)</sup> 용어사전 서비스와 관련해 목적, 표제어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정보는 나와 있지 않다.

거시 구조를 살펴보면 건축, 미술, 음악 등 별도의 분야 분류는 되어 있지 않고 ㄱ, ㄴ 순으로만 정렬되어 있으며 현재 총 354건의 표제어가 등록되어 있다. 각 표제어 항목에 대한 미시구조는 국문 표제어, 한자명, 영문명, 국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철저히 문자 기반으로 별다른 삽화나 사진은 찾아볼 수 없다.

전쟁기념관(<http://www.warmemo.or.kr/>)도 국립중앙박물관과 거의 유사한 『유물용어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두 기관의 사전이 표제어, 구조, 설명 내용 등에서 모두 일치해 동일 콘텐츠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어떤 용어를 검색하고자 할 경우, 종이사전을 찾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용어의 초성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클릭해(예를 들어 ‘청자’의 경우 ‘ㅈ’을 클릭) 해당 철자 페이지로 먼저 이동한 후에야 검색창에 용어를 입력해야 결과가 화면에 도출되는 사용자 비친화적 검색 특성까지도 두 사전이 공유하고 있다. 다만 전쟁기념관의 용어사전이 표제어 수가 약간 더 많고 등록되어 있는 ‘영문명’이 없을 시 국립중앙박물관 사전은 빈 칸으로 남아 있는데 반해 전쟁기념관은 ‘null’이라고 표시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전국의 104개 박물관 관련 정보를 일괄 통합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이뮤지

10) 동 연구를 처음 시작한 2013년 6월 기준. 현재는 ‘소장품’ 메뉴 밑에 『소장품용어사전』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엄(<http://www.emuseum.go.kr/>)의 경우도 표제어 1,912건을 포함한 『유물용어사전』을 제공하고 있으나 철저히 한글 기반으로 영문으로 된 표제어 및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 3.2.2 대학 부속 박물관 용어사전

대학 부속 박물관에서 서비스 중인 용어 사전과 관련해서는 조선대학교 박물관(<http://museum.chosun.ac.kr/sch/term.cgi>)과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http://museum.duksung.ac.kr/sch/term.cgi>)의 경우를 앞서 살펴본 국공립박물관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두 대학 박물관 모두 사전의 미시 구조 측면에서 국문 표제어, 한자명, 영문명, 국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립중앙박물관 및 전쟁기념관과 동일하다. 다만 이들 항목을 화면에 표시함에 있어 그 레이아웃(layout)만이 다를 뿐이다(아래 표 참조). 그러나 이 레이아웃 또한 대학박물관끼리, 국공립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끼리는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또한 가지 공통점은 각 표제어에 대한 영문명 및 국문 설명이 네 기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표 3〉 각 표제어 항목에 대한 박물관별 표시 방식 및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및 전쟁기념관	
청자 철화	한자명: 靑磁鐵畫 영문명: celado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철분이 많은 자토를 태토 위에 장식하여 청자유를 씌워 구운 청자. 철회(鐵繪)라고도 함.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및 조선대학교 박물관	
한글명 : 청자철화, 한자명 : 靑磁鐵畫 영문명 : celado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철분이 많은 자토를 태토 위에 장식하여 청자유를 씌워 구운 청자. 철회(鐵繪)라고도 함.	

앞서 살펴본 두 국공립박물관과 덕성여대 및 조선대학교 박물관 용어 사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검색 시스템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의 경우

종이 사전처럼 특정 용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용어의 첫글자 초성에 해당하는 아이콘을 먼저 클릭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덕성여대와 조선대 박물관 용어 사전의 경우에는 해당 초성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검색이 가능하다. 대신 키워드 검색 시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앞 단어를 기준으로 검색이 이루어져 해당 키워드가 뒷부분에 포함된 표제어는 결과 화면에 도출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

검색 방식이 다르다는 점 이외에도 이들 두 대학 박물관은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전쟁기념관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용어사전 검색 도움말’을 제공하고 있다. ‘자음을 통한 용어검색’, ‘키워드를 통한 검색’, ‘검색결과리스트’, 그리고 ‘어린이 도움말’ 등으로 덕성여대와 조선대 박물관이 동일한 구성을 보인다. 용어 사전 검색 방식이나 검색 도움말, 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이들 두 대학 박물관은 동일한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웹사이트를 구현하고 있는 디렉토리(directory) 구조 상 두 대학의 용어 사전이 모두, ‘디렉토리11)검색’, ‘항목별 검색’, ‘전문가 검색’, ‘용어사전 검색’으로 동일한 하위 분류를 보이는 ‘유물검색’ 메뉴 밑에 들어가 있다는 점, 용어 사전의 인터넷 상세 주소 역시 해당 박물관의 홈페이지 주소 뒤에 각기 ‘검색(search)’과 ‘용어(terminology)’를 표시하는 ‘sch’, ‘term’<sup>12)</sup>을 붙여 동일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사전의 특징과 장단점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 사전별 특징과 장단점

분류		사전명	특징 및 장단점
종이 사전	공공 기관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제어 1,176건</li> <li>•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한 용어가 대상</li> <li>• 장점: 용어 해설 제공</li> <li>• 단점: 낮은 접근성<sup>13)</sup></li> </ul>

11) 이 디렉토리는 용어 사전 자체의 디렉토리를 말하는 것으로 앞서 말한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구조와는 구별된다.

12) 조선대학교 박물관은 <http://museum.chosun.ac.kr/sch/term.cgi>,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은 <http://museum.duksung.ac.kr/sch/term.cgi>.

		한국문화재 용어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제어 2,824건</li> <li>• 표제어 및 정의문을 국문과 영문으로 모두 제공</li> <li>• 장점: 상호참조가 잘 되어 있음. 옛말, 북한 용어까지 아우름</li> <li>• 단점: 낮은 접근성</li> </ul>
	민간	한국 역사·문화 용어 한영 용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 개인의 저작물</li> <li>• 장점: 공공기관 자료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동의어를 제시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됨</li> <li>• 단점: 낮은 접근성</li> </ul>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한 내용과 구성으로 국·영문판 존재</li> <li>• 장점: 풍부한 삽화와 사진, 백과사전식 설명, 각 문화유산의 부분별 명칭을 음역 및 훈역</li> <li>• 단점: 낮은 접근성</li> </ul>
온라인 사전	공공 기관	국공립 박물관 <sup>14)</sup> 유물용어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표제어 354건(국립중앙박물관)</li> <li>• 장점: 표제어에 대한 국문 정의 제공</li> <li>• 단점: 사용자 비친화적 검색 기능</li> </ul>
		한국역사용어 시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분야 표제어 5,012건</li> <li>• 장점: 검색 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가능, 표제어에 대한 정의문 제공, 표제어 간 연관 관계 표시, 하이퍼텍스트 기능 지원</li> <li>• 단점: 일부 표제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음역만 제시</li> </ul>
		한국학 영문용어용례 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권 이상의 자료에서 7,000여 용례 추출</li> <li>• 번역자도 염두에 두고 구축된 것임을 ‘소개의 글’에서 명확히 밝힘</li> <li>• 장점: 표제어에 대한 한글 정의, 해당 표제어가 사용된 영문 용례 및 출전을 명기</li> </ul>
	민간	대학 부속 박물관 용어사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시구조, 표제어에 대한 영문명 및 국문 설명이 국공립박물관 유물용어사전과 동일</li> <li>• 국공립박물관 유물용어사전보다는 향상된 검색 기능</li> <li>• 단점: 검색어가 합성어 뒷부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검색 결과로 도출되지 않음</li> </ul>

13) 여기서 말하는 접근성은 종이사전이 지니는 내재적 한계로, 종이사전 자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과 특정 표제어를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된 시간적 접근성, 두 가지 차원을 지닌다.

14) 국립중앙박물관과 전쟁기념관의 유물용어사전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거의 동일

## 4. 개선점 및 제언

앞서 전문용어 사전의 부재가 관련 분야 번역의 오역 내지 미진한 번역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전문용어 사전이 존재하더라도 제시하고 있는 영문 대응어가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수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매우 발달한 현대에는 종이사전보다 웹에 기반한 온라인 사전의 사용이 보편적이다. 전문용어 사전 또한 그 상황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에서 서비스되는 문화재 분야 용어 사전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한 번역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4.1 번역

#### 4.1.1 역사 인식: ‘을사늑약’ vs. ‘을사보호조약’

최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한 역사 왜곡 논란이 거셌다. “조선군 위안부는 일본군을 따라다니던 경우가 많았다”는 표현을 신는 등(YTN 2014/1/7 보도) 한국 현대사를 연구한 일본인 학자조차도 교학사 교과서가 ‘자학사관(自虐史觀)’을 반영한 것이라 지적한다(한겨레 2013/9/12).

올바른 역사 인식의 부재 문제는 번역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전문용어 사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우리의 주체적 시각을 담지 못하고 식민주의적 사관이 그대로 반영된 채로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일례로 ‘을사늑약’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을 예전에는 ‘을사보호조약’이라 칭했는데 지금은 동조약이 강제된 것이라는 의미에서 ‘역지로 하다 늑(勒)’ 자를 넣어 ‘을사늑약’이라고 부른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영문용어용례사전』의 경우 ‘을사늑약’이 아닌 ‘을사조약’을 표제어로 등재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영문 대역어로 제시된 표현 내지 용례에 대해서만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

한 구조 및 내용으로 구축되어 있어 국공립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덕성여자대학교와 조선대학교 부속 박물관 용어사전 역시 그와 동일한 이유에서 대학 부속 박물관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였다.

『한국학영문용어용례사전』과 『역사용어시소러스』의 국문 정의문에서는 각기 ‘1905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맺은 조약’ 그리고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5적과 체결한 조약이나 고종 황제가 끝까지 재가하지 않은 원인 무효의 조약’이라고 강제된 조약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문 대역어, 혹은 용례로는 각기 ‘Protectorate Treaty’와 ‘Japan-Korea treaty of protection’이라는 표현을 아무런 설명 없이 제시하고 있어 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이었다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관련한 유물을 시대별로 전시하고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경우 을사늑약과 관련한 패널 및 사진 설명문에 “Eulsa Treaty (Eulsaneugyak)” 혹은 “Eulsa Treaty of 1905”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공간적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처럼 ‘보호’에 해당하는 표현은 삭제하고 사실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번역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orea-Japan Treaty of 1905/Eulsa Restriction Treaty, considered illegal and invalid by Korea’처럼 ‘늑약’임을 설명하는 표현을 첨가해 주어야 보다 적절한 번역이 될 것이며 또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번역용 사전 편찬 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반영한 표현 내지 용례를 무차별적으로 실는 우는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기울여야 한다.

#### 4.1.2 문화 정체성: 매병(‘maebyeong’ vs. ‘meiping’)<sup>15)</sup>

동아시아 미술사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극히 미미하며<sup>16)</sup> 이는 제대로 번역된 우수한 관련 서적의 부족에서 기인한 바도 없지 않다. 그런데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공립 및 대학 박물관 네 곳의 사전 모두 이

15) 2012년 8월 17일 개최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매병’을 ‘prunus vase’로 번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동 자료집 말미에 첨부된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용례집 샘플’을 보면 보물 제345호 ‘백자 상감모란문 매병’의 공식 명칭은 ‘White Porcelain Prunus Vase with Inlaid Peony Design’으로 하고 ‘White Porcelain Prunus Vase’, ‘Vase’, ‘Maebyeong’은 약칭 혹은 별칭으로 인정하고 있다.

16) 일레로 헬렌 가드너(Helen Gardner)의 『고금예술 Art Through the Ages』은 극동아시아 예술로 인도, 중국, 일본만을 다루고 있다.

리한 안타까운 현실을 부채질하는 번역을 일부 신고 있었다.

『한국문화재용어사전』에 따르면 ‘상체가 크고 S자 곡선을 이룬 병’, 혹은 ‘아가리가 좁고 어깨는 넓으며 밑이 홀쭉하게 생긴 병’을 매병(梅瓶)이라 이른다. 동 사전은 ‘plum bottle’을 영문 대응어로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의 조사 대상 박물관 네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어 사전에서는 모두 ‘prunus jar vase in Meiping style’로 번역하고 있다. ‘meiping’은 ‘梅瓶’을 중국의 공식 로마자 표기법인 한어 병음으로 표기한 것으로 중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 혹은 답습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p>◀ 국보97호 청자 음각 연꽃 넝쿨 무늬 매병 -소장처: 국립중앙박물관 -시기: 고려(12c) -유물번호: 덕수-002656-000</p>		<p>◀ Vase in Meiping Shape with Phoenix -소장처: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시기: 명나라(16c 말~17c 초) -유물번호: 1979.109</p>
--	--	---	--

문화재청(<http://www.cha.go.kr/>)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국보 97호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을 설명하며 “원래 매병의 양식은 중국 당나라와 송나라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고려 초기에 전래된 이후 곡선이나 양감에서 중국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여 고려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용어 사전에 ‘meiping’이라는 표현을 실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이러한 차별성을 부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 출판된 세계미술사 교재로 온라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참고서적<sup>17)</sup>이기도 한 『가드너의 고급예술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을 보면 ‘Glossary’ 부분에 ‘매병(maebyeong)’과 ‘梅瓶(meiping)’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17) 참고한 미술 개론서 중 하나로 『가드너의 고급예술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제8판을 들고 있다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3715b](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3715b)).

- maebyong - A Korean vase similar to the Chinese meiping  
[매병 - 한국의 (자기) 화병으로 중국 梅瓶과 유사함]
- meiping - A Chinese vase of a high shouldered shape; the sgraffito technique was used in decorating such vases<sup>18)</sup>  
[梅瓶 - 건부가 봉긋이 솟은 중국 화병으로 박지(剝地)기법으로 장식함  
(대괄호 안은 필자의 번역)]

‘maebyong’을 설명함에 있어 ‘한국(Korean)’과 ‘유사하다(similar)’라는 단어를 통해 중국의 ‘meiping’과는 차이점이 존재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용어사전에서 ‘meiping’이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욱 의문이 든다.

표기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영문홈페이지 (<http://www.museum.go.kr/main/index/index002.jsp>)의 ‘유물 데이터베이스(Collection Database)’를 검색해 보면 국보 97호 청자 음각 연꽃 넝쿨 무늬 매병의 유물명은 “Maebyeong (Vase), Celadon with Incised Lotus-scroll Design”으로 되어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설명을 덧붙여 ‘meiping’과의 관련성도 밝히고 있다.

This style of vase, with a wide upper body that curves to become more narrow towards the foot, is called a maebyeong, from the Chinese meiping (梅瓶, “plum vase”)

[상부가 넓고 굽으로 갈수록 동체가 좁아지는 이러한 유형의 화병을 매병이라 부르는데 (‘매화 가지를 꽃기 위한 병’이라는 뜻을 지닌) 중국 梅瓶에서 연원한다 - 필자의 번역]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2013년 6월 검색)

다시 말해 ‘maebyeong’이라는 한국어 로마자 표기가 대표 영문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sup>19)</sup> 동일 기관에서조차 ‘매병’을 ‘maebyeong’과 ‘meiping’으로 다르

18) 미국 콜로라도 주에 소재한 록키산맥예술디자인대학(Rocky Mountain College of Art and Design)의 학생 학습 지원 센터(Student Learning Center)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예술디자인 용어집(Glossary of Art, Design and Online Terms)’도 『가드너의 고급예술』을 참고해 ‘maebyong’과 ‘meiping’에 대해 이와 동일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게 표기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그럼 미술사학계에서 ‘매병’을 ‘meiping’이라 쓰던 관행이 굳어져 동 표기가 그대로 용어사전에 수록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인 1970년대에 동화출판사에서 발간한 ‘한국의 예술 시리즈(The Arts of Korea)’ 제 4권 『도자기 Ceramics』<sup>20</sup>편을 보면 국보 97호의 영문 명칭이 ‘Celadon Maebyong Vase with Incised Lotus and Arabesque Design’으로 되어 있다(Choi and Chung 편 1974: 19). 2000년 7월 국어 로마자 표기법 개정 전임을 감안하면 ‘maebyong’이라는 표기는 현재의 ‘maebyeong’에 상응한다. ‘meiping’이 ‘매병’의 번역으로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 예전부터 일관되게 써오던 표기 방식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외국에서는 ‘maebyeong’과 ‘meiping’을 구분하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미국과 영국의 대표적 박물관 한 곳씩을 조사해 보았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etmuseum.org/>)에서 ‘maebyeong’과 ‘maebyong’을 검색한 결과 각 9건과 1건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소장유물 정보 8건, 2011년 하반기 전시회 안내 자료 1건에서 ‘maebyeong’이라는 표기를 쓰고 있었고 ‘maebyong’은 1999년에 개최된 전시회 소개문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검색어를 ‘meiping’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총 14건의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 중 11건이 중국 도자기였고 베트남, 일본, 한국 도자기가 각 1건씩 검색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13건 모두 유물명에 ‘meiping’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 도자기만은 유물명이 ‘maebyeong’으로 등록되어 있고 설명 부분에 ‘meiping’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미술사 학생 및 학자가 연구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 미술관 소장 유물 7천여 점에 대한 설명 및 930편의 논문

19) 국립중앙박물관 영문 도록 『National Museum of Korea』에서는 ‘매병’을 의미역만 하고 있어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203쪽의 국보 97호 ‘청자 음각연화당초문 매병’(‘청자 음각 연꽃 넝쿨 무늬 매병’의 이칭) 사진 설명을 보면 “Plum vase, Celadon with incised lotus scrolls”라 번역되어 있다).

20) 이 책의 번역은 ‘코리아 타임즈(The Korea Times)’ 지 기자 출신으로 콰브리치(Ernst Hans Josef Gombrich)의 『서양미술사 The Story of Art』를 번역하기도 한 백승길 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부장이 맡았다.

등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예술사연대표 *Heilbrunn Timeline of Art History*’(http://www.metmuseum.org/toah/intro/atr/atr.htm)의 ‘청자상감운학문매병’(유물 번호 27.119.11) 소개 첫머리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다.

A *maebyeong* is a vessel with a small mouth, shortneck, round shoulder, and constricted waist. The form is derived from the Chinese *meiping*, or "prunus vase." The Goryeo *maebyeong* is distinguished from its Chinese counterpart by a saucer-shaped mouth and a body that forms a pronounced S-shaped curve, resulting in a slightly flared base.

[‘매병’은 구연이 작고 경부가 짧으며 둥근 견부와 동체 중앙부에서 좁아지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기형(器形)은 중국 ‘梅瓶’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 매병은 반구형 구연에 동체를 따라 흐르는 곡선이 굽 바로 위에서 반전하여 S자형이 확연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중국의 것과는 구별된다. - 필자의 번역]



출처: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홈페이지(2013년 6월 검색)  
(http://www.metmuseum.org/toah/works-of-art/27.119.11)

영문 유물명(*Maebyeong*, Stoneware with inlaid decoration of cranes and clouds under celadon glaze<sup>21</sup>)을 ‘maebyeong’이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매병이 ‘meiping’을 원류로 하기는 하나 기형면에서 구별되는 특색을 지니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대영박물관(The British Museum)의 경우 홈페이지(http://www.britishmuseum.org/) 검색창에 ‘meiping’을 입력하자 소장 유물 데이터베이스에서 총 87건의 유물 정보가 검색되었다. 이 중 12건은 일본, 나머지 75건은 중국 유물이었다. ‘maebyeong’으로 등록된 유물은 없는 대신 한국 유물 7점이 명칭에 ‘maebyong’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3건(Punchong ware maebyong vase 1건, Stoneware maebyong vase 2건)은 박물관 대표 소장 유물(highlight objects)로 분류되어 해당 유물과 관련된 보다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 모두 다음과 같은 공통 문구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21) 국문 명칭은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이다(『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p. 161).

Wine bottles like this are known as *maebyong*, which comes from the Chinese *mei-ping* ('vase for plum blossoms'), a misnomer dubbed by Chinese scholars. It would have originally had a lid.

[동 유물류의 주병(酒瓶)은 '매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중국 문인들이 잘못 명칭을 붙인 '梅瓶(매화 가지를 꽂기 위한 병)'에서 연원한다. 원래 뚜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필자의 번역]

출처: 대영박물관 홈페이지<sup>22)</sup>

공시적, 통시적 고찰 결과 고려 매병의 경우 의미역이 아닌 이상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maebyong' 혹은 'maebyeong'으로 음역해 중국의 매병(梅瓶, meiping)과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유독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국내 박물관의 유물 용어 사전에서만 'maebyong/maebyeong'과 병기를 한 것도 아니고 'meiping'이라는 표현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동아시아 미술사에 있어 한국의 위상과 관련해 한번쯤은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4.1.3 적확성: 굽구멍(투창)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을 보면 토기 굽에 뚫린 구멍을 의미하는 '투창'을 'spear-like linear motifs' 혹은 'spear-shaped linear design'으로 오역하고 있다. 동 용어를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해 앞서 소개한 박물관 네 곳의 온라인 용어 사전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투창'이 대표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그 동의어인 '굽구멍'을 검색해 보니 모두 'windowed hill of mounted cup'이라는 영문 대응어를 제시하고 있었다.

'mounted'라는 표현은 '굽이 달린'<sup>23)</sup> 토기에 한정함을 나타내는 적절한 용

22) 상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britishmuseum.org/explore/highlights/highlight\\_objects/asia/p/punchong\\_ware\\_maebyong\\_vase.aspx](http://www.britishmuseum.org/explore/highlights/highlight_objects/asia/p/punchong_ware_maebyong_vase.aspx)

[http://www.britishmuseum.org/explore/highlights/highlight\\_objects/asia/s/stoneware\\_maebyong\\_vase.aspx](http://www.britishmuseum.org/explore/highlights/highlight_objects/asia/s/stoneware_maebyong_vase.aspx)

[http://www.britishmuseum.org/explore/highlights/highlight\\_objects/asia/s/stoneware\\_maebyong\\_vase-1.aspx](http://www.britishmuseum.org/explore/highlights/highlight_objects/asia/s/stoneware_maebyong_vase-1.aspx)

23) 'mounted'라는 표현 이외에도 'footed', 'with foot' 등의 대안이 있다. 한국국제교류

어인 반면 ‘cup’이나 ‘windowed hill’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굽다리에 투창이 나있는 신라 혹은 가야시대 유물로는 잔 이외에도 굽다리접시(고배 高杯: mounted plate)나 굽다리항아리(대부호 臺附壺: mounted jar) 등도 있어 ‘cup’으로 한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windowed hill’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구멍이 뚫린 굽’이라는 뜻을 글자 그대로 번역해 ‘windowed heel’이라고 적으려 했던 것이, ‘heel’을 장단모음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발음이 유사한 ‘hill’로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정확하지 않은 번역임에도 네 기관의 용어사전 모두 동일한 오역을 신고 있음은 실로 놀라운 일이다.

‘굽구멍’에 대한 보다 적절한 번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다른 도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굽다리는 중간에 있는 두 줄의 돌대를 기준으로 상하 2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단에 세로로 긴 직사각형의 투창 4개가 뚫려 있고……하단에는 사다리꼴 모양의 투창 4개가 상단 투창과 엇갈리게 뚫려 있다.

A pair of protruding bands divides the foot into two areas, with the top one bearing four rectangular openworks…The same number of trapezoid perforations occupy the bottom space at alternating positions on the upper ones.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159쪽 ‘굽다리접시’

‘투창(透窓)’의 ‘투’는 ‘앞뒤가 모두 뚫려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도록 새기거나 깎는 조각의 한 기법’을 의미하는 ‘투조(透彫)’에서 온 것으로 상기 용례에서 보는 것처럼 ‘openwork’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홈페이지(<http://www.brooklynmuseum.org/>)에서 검색되는 한국 유물 중 동일 기법의 장식을 보이는 유물의 경우도 ‘openwork’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례로 유물 번호(accession number) 86.260.3으로 등록되어 있는 조선시대 유물 ‘백자포도무늬화분받침<sup>24)</sup>’의 유물관리카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동 기법을

재단에서 발간한 『한국문화재용어사전』은 ‘도자기에서 몸체를 지탱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굽’에 대해 ‘foot’이라는 영문 표기를 제시하고 있다.

‘openwork’로 기술하고 있다.

White porcelain with cobalt and iron decoration under a clear glaze. A large porcelain Seat for a gentleman scholar's garden. Its carved, openwork decoration depicts grapevines, grape leaves and clusters of grapes...

[철채청화백자. 문인의 정원을 장식했던 대형 화분 받침. 포도덩굴과 잎, 포도알이 투각기법으로 시문되어 있다…… - 필자의 번역]

출처: 브루클린박물관 홈페이지(2013년 6월 검색)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LACMA) 용례에서는 ‘perforations’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동일 표현의 반복을 피하는 영어의 문체 관습에 따라 표현을 다양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openwork’이나 ‘perforation’이라는 표현 이외에도 ‘pierced’라는 표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례로 LACMA 소장 한국 유물 중 ‘뚜껑굽다리접시’(유물번호 AC1999.187.1.1-2)는 박물관 홈페이지(<http://www.lacma.org>)에 그 명칭이 ‘Lidded Vessel with Pierced Ring Foot’으로 소개되어 있다.



#### 4.2 사용자 친화성

다음으로는 이번 연구에서 살펴본 문화재 용어 이중언어 사전류의 검색 및 거시, 미시구조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 4.2.1 검색

폴(1989:134)은 번역 도구로서의 사전에 대해 논하며 사전에서 단어 하나를 찾는 데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면 사전을 이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

24) 브루클린박물관 홈페이지에는 ‘Garden Seat’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간한 『미국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Korean Art Collection in the Brooklyn Museum, New York, U.S.A.*』에는 ‘Blue-and-white Porcelain Flowerpot Base with Openwork Grape Design in Underglaze Iron’으로 영문명이 나와 있다.

지적하며 서문이나 사용자 안내서를 끊임없이 들춰봐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표제어 구조를 명확히 만들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다. 이는 물론 종이사전을 염두에 둔 언급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전의 사용자 친화성을 논한 것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된 현재에 와서는 검색적 측면과 관련해 그 논의를 확장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투창’의 경우를 들어 현 문화재 용어 사전류가 과연 사용자 친화적인지를 논의해 보기로 하자. 본 연구에서 조사한 종이사전류에서는 ‘투창’, 그리고 그 동의어인 ‘굽구멍’을 표제어로 등록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 반면 온라인 사전류에서는 ‘굽구멍’이 표제어로 올라와 있기는 했으나 ‘투창’을 검색어로 입력할 경우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않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굽구멍’이라는 표제어 항목 밑에 한문명 ‘투창(透窓)’과 ‘투공(透孔)’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엔진이 이를 결과로 도출해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용어는 들어가 있으나 사실상 검색이 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무용지물인 셈이다.

한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덕성여대와 조선대 박물관 용어 사전의 경우 키워드 검색 시 합성어를 구성하고 있는 앞 단어를 기준으로 검색이 이루어져 해당 키워드가 뒷부분에 포함된 표제어는 결과 화면에 도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고리’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두 대학 박물관 모두 5개의 표제어(‘고리병’, ‘고리자루칼’, ‘고리잡이’, ‘고리점무늬’, ‘고리칼’)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표제어 목록을 살펴보면 ‘가는 고리’, ‘겹고리무늬’, ‘고삐고리’, ‘굽은 고리’ 등 ‘고리’라는 단어가 포함된 표제어가 더 등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 4.2.2 미시/거시 구조

먼저 본고에서 살펴본 국공립 기관 유물용어사전의 가장 큰 단점은 가시성 혹은 노출도가 낮다는 데 있다. 이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하는데 먼저 ‘유물’ 용어 사전이라는 사전의 명칭 자체에 있다. 문화재 분야 번역을 하다 막히는 용어가 있어 인터넷에서 사전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번역자는 일반적으로 ‘문화재 용어’ 혹은 ‘문화유산 용어’를 검색어로 입력할 것이다. ‘유물 용어’는 해당 사전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쉽게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두 번째는

이들 유물용어사전이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최상위 메뉴, 배너 등의 형식으로 전진 배치되어 있지 않고 몇 단계의 메뉴를 거쳐야만 접근할 수 있는 깊이(depth)를 지니고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전쟁기념관의 경우는 4단계(홈→전쟁/군사정보→유물정보→유물정보검색→용어사전검색)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본 온라인 사전 네 개의 경우 등재 표제어에 대해 영문 대응어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제대로 된 이중언어 용어사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일례로 연꽃을 장식적으로 도안화한 연화무늬 등을 시문할 때 꽃잎을 두 겹 이상으로 표현하면 이를 ‘복판(複瓣)’이라 칭하는데 ‘복판’이라는 표제어 밑에 한자명과 설명은 수록되어 있으나 영문명은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 4.2.3 용어의 표준화

2000년 문화재청은 국민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보다 잘 향유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건축사, 고고학, 민속학, 미술사 네 분야에 걸쳐 『(쉽게 고친) 문화재 용어 자료집』을 발간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또한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해 재개관할 당시 전시 용어를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정확하게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미술사 전시 용어 개선 작업을 거쳤으며 그 결과물을 이듬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라는 책으로 엮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재 용어 순화 노력은 아직까지 제한적인 파급력만을 발휘하고 있다. 일례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청자상감포류수금문주자(靑瓷象嵌蒲柳水禽文注子)’는 전시 용어 개선 작업에 따라 ‘청자 물가 풍경 무늬 주전자’로 바뀌었다. 그런데 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조사 보고서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를 보면 유물명이 여전히 ‘청자상감포류수금문합(靑瓷象嵌蒲柳水禽文盒)’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표면보다 도드라지게 하여 띠처럼 두른 문양을 의미하는 ‘돌대(突帶)’의 경우도 사전마다 돌대문, 돌을띠무늬 등 각기 다른 표제어로 들어가 있어 번역자가 해당 용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무엇을 표제어로 삼을지 표준화시키고, 온라인사전의 하이퍼텍스트적 특성을 살려 동의어 등에 링크를 걸어준다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이며, 번역 지향적인 사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아래 국립문화재연구소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도록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번역자가 ‘돌대’의 ‘돌’을 ‘돌아있는’이 아닌 ‘돌(石)’로 유추해 오역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003 인화문합

印花文盒

Stoneware Lidded Bowl with Stamped Floral Design

……완碗은 둥글게 표현된 구연 아래 굵은 2조의 침선을 넣어 1 조의 돌대가 나타나도록 표현하였다. 그 아래 이중의 반원 점문을 3단으로 시문하였으며, 낮은 굽은 안정감을 주고 있다……

...The bowl is round - shaped and has two thick dotted lines below the rim, producing the effect of a row of stone blocks. Beneath are three rows of semicircular dots. The foot of modest height gives this bowl a stable appearance...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P. 125

‘인화문합(印花文盒)’에 대한 설명 일부를 발췌한 상기 예에서 번역자는 ‘돌대’를 ‘a row of stone blocks’라고 표현하고 있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돌’을 ‘石(stone)’이라 잘못 이해한 채 번역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물론, 사진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거나 번역 마감이 촉박해 자료를 충분히 찾아볼 시간이 없었다든가 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전문 (professional) 번역가라면 해당 미술관 홈페이지를 검색해 사진 및 관련 정보를 찾아보든지 고객에게 사진 자료를 요청<sup>25)</sup>하는 등의 노력을 응당 기울였어야 한다. 실제로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etmuseum.org/Collections/search-the-collections/60028703>)에서 ‘Bowl with Cover’(유물 번호: 60.130.2a, b)라는 유물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기 유물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다시 번역 문제로 돌아가, 문화재 용어사전에 ‘돌대’는 ‘돌대문’ 혹은 ‘돌을 띠무늬’라는 표제어로 등록되어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용어사전』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문화재용어사전』에서 관련 표제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

25) 켈리(Kelly)는 이를 번역 의뢰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대인관계 능력(interpersonal competence)’의 한 예로 언급하고 있다(2000: 164-65).

은 설명이 나온다.

돌대문: 한자명 : 突帶文 영문명 : raised bands

돌을떠무늬. 그릇의 표면을 물레를 사용해서 나무칼 등으로 돌게 하여 띠처럼 돌아가게 한 무늬. 도기에 주로 나타남.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유물용어사전』

돌을떠무늬 dodeultti-munui (고) 그릇의 표면을 예새[나무칼] 등으로 돌게 하여 띠처럼 돌아가게 한 무늬. 주로 도기에 나타남 (raised band pattern); a pattern on the surface of ceramic vessels; while a vessel is spun on a potter's wheel, a sharp implement is used to create a raised band around the circumference of the vessel, appearing much like a belt

출처: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재용어사전』 p. 90

위 설명에 따르면 표면의 다른 부분에 비해 돌출되어 있다는 특징과 띠처럼 둘러져 있다는 특징, 두 가지를 모두 담아내야 ‘돌대’의 개념을 제대로 번역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기 사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raised bands’나 ‘raised band pattern’이라고 간략히 번역해도 되고 지금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한 해외 박물관 소장 문화재 도록 시리즈에 나타난 다음 용례를 활용해 표현의 다양성을 기해도 좋을 것이다.

- ① …the neck is divided into three zones by raised horizontal lines…  
(…경부(頸部)에는…돌대로 구획하여 모두 3단으로 처리…) (p. 197)
- ② …the two bands are separated by…rings of double engraved lines…  
(…돌대로 구획된 상·하단…) (p. 197)
- ③ …engraved with double lines, forming a narrow ridge…  
(…2조의 굵은 침선을 넣어 1조의 돌대와 같이 표현…) (p. 198)
- ④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by a pair of protruding lines…  
(…두 줄의 돌대에 의해 2단으로 구분…) (p. 170)

(출처: ①~③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④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단시간에 용어를 표준화하기란 어려운 일이므로<sup>26)</sup>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은

유의어 및 동의어를 최대한 많이 포함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옛말’과 ‘북한용어’ 또한 아우르고 있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문화재 용어사전』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러두기’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어 표제어는 “기존에 사용하던 일본식 어투 및 한자어” 표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식적 순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4.3 단순 오류

불교의 성스러움을 상징하는 화려한 꽃 모양을 의미하는 ‘보상화문(寶相華紋)’을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용어사전』에서는 “stylized floral medallion used as decorative pattern”으로 번역하고 있다. 명백한 철자법 오류(‘stylized’를 ‘stylized’로, ‘pattern’을 ‘patten’으로)가 눈에 띄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오류가 다른 세 곳의 온라인 사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전쟁기념관, 조선대학교 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용어사전이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방증한다.

ST의 오류가 TT에서의 오류로 이어진 경우도 발견할 수 있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용어사전』은 ‘귀얄자국’과 ‘귀얄질’, 두 표제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동일한 설명문을 제시하고 있다.

귀얄질에 의해 토기표면에 남은 자국. 주로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 토기에 나타난다.

정의문이 동일하니 영문 번역 또한 ‘brushing trace’로 동일하다. 그러나 누구나 설명문을 보고 바로 ‘귀얄질’에 대한 정의로 ‘귀얄자국’의 설명이 잘못 들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귀얄질’은 토기 표면

- 26) 일례로 공영방송 KBS가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숨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발굴해 그 가치를 살펴보고 우리 문화재의 보호의식을 고취시켜 잘 보존토록 유도”할 목적으로 방영하고 있는 TV쇼 진품명품(<http://www.kbs.co.kr/1tv/sisa/curio/vod/vod.html>)의 부제만 살펴더라도, ‘청자 음각 연화문 매병’, ‘분청사기 음각 편병’, ‘지승원반’ 등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에서 제시하고 있는 용어와는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을 고르기 위하여 얇고 거칠게 긁는 일을 말한다. 이 정의에 기반해 번역자가 귀알질을 제대로 번역했지만, 두 표제어에 대해 동일 정의문을 보여주고 있는 검색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인해 ‘brushing trace’라는 잘못된 영문 번역어가 제시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귀알질’과 ‘귀알자국’의 정의문이 동일한데도 별 신경을 쓰지 않고 ST 그대로 번역을 했을 수도 있다. 물론 전문 번역가라면 후자의 경우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감수 내지 마지막 검토 과정에서 제대로 수정이 되었다라면 좋았을 부분이다. ‘귀알질’ 혹은 ‘찰과법’은 하나의 기법이므로 ‘brushing technique’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 5. 맺음말

본 논문에서는 문화재 분야 한영 번역 시 참고 가능한 이중언어 전문용어 사전 및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그 현황을 분석한 후, 이들 사전이 산출형 사전으로 번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고찰해 보았다.

물론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비해 현재는 용어집, 데이터베이스 등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사전이 존재해 상황이 많이 나아진 편이기는 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존재했다. 먼저, 번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측면으로는 부정확하거나 역사 인식이 결여된 대역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문화 정체성과 번역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지 못한 사례들이 존재했다. 또한 용어 표준화와 검색 기능, 미시·거시구조 측면에서도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전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및 지향점을 간략히 제시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우선 문화재 분야 한영 번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어 사전 모델 수립에 기여한다는 점에 있다. 품질이 담보된 전문용어 사전은 궁극적으로 문화재 영문 용어 표준화 및 번역 수준을 제고하는 기틀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영 번역만을 다루었으나 논의를 확장해 다른 외국어로의 번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번역 보조 도구로서의 문화재용어사전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루다 보니 개선이 필요

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소수의 사례만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 본 논문이 앞으로 이들 각 항목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경인문화사 (1998) 『불교용어사전』, 서울: 경인문화사.
- 국립중앙박물관 (2006)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용어-미술사』,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 김도훈 (2006) 「문화소의 부등성 보상을 위한 번역전략」, 『번역학연구』 7(2): 31-51.
- 문화재청 (2011)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안 마련 공청회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 박현주 (2013) 「고구려 고분 명칭 번역 현황 및 중국어식 음역의 지정학적 함의 -중국 소재 장천고분 및 통구고분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127-54.
- 정일영, 정의상 (2011) 「광주·전남 관광문화포털 ‘남도코리아(南道코리아)’의 문화소 번역전략의 적절성 문제」, 『번역학연구』 12(1): 239-62.
- 정진혜 (2011) 『한국문화유산 용어사전』, 고양: 에듀씨코리아.
- 최희섭 (2008) 「영어 관광 안내판의 번역 오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217-40.
- 한겨레 (2013/9/12) 「일본 역사학자 “교학사 교과서는 자학사관, 후소샤보다 못해”」.
- YTN (2014/1/7) 「“위안부 따라다녔다” 표현등 논란된 교학사 교과서」.
- Al-Kasimi, Ali M. (1983) ‘The interlingual/translation dictionary: dictionaries for translation’, in R. R. K. Hartmann (ed.)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London: Academic Press, 153-62.
- Austermuhl, Frank (2001) *Electronic Tools for Translators*, Manchester/Northampton: St. Jerome Publishing.

- Burkhanov, Igor (2004) 'Requirements for an 'Ideal' Bilingual  $L_1 \rightarrow L_2$  Translation-Oriented Dictionary', *Lexikos 14 (AFRILEXreeks/series 14)*: 17-34.
- Choi, Sun U and Chung, Yang Mo (eds.) (1974) *The Arts of Korea Vol. IV: Ceramics*, Seoul: Dong Hwa Publishing Co.
- Dancette, Jeanne and Rethore, Christophe (2000) *Analytical Dictionary of Retailing*, Les Presses de L'Universite de Montreal.
- Gardner, Helen (1948) *Art Through the Ages* (3<sup>rd</sup> ed.), Chicago: Harcourt, Brace and Company.
- Kelly, Dorothy (2000) 'Text Selection for Developing Translator Competence: Why Texts from the Tourist Sector Constitute Suitable Material', in Christina Schaffner and Beverly Adab (eds.) *Developing Translation Competenc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157-67.
- Kernerman, Lionel (2001) 'The Meaning of User-friendly', *ASIALEX 2001 Proceedings: Asian Bilingualism and the Dictionary*, The Second ASIALEX International Congress, 147-51.
- Kleiner, Fred S. (2011) *Gardner's Art Through the Ages: A Global History* (13th ed.), Boston: Wadsworth.
- Nam, Won Jun (2008) 'How Students Translate Culture-specific Items: An Analysis of Student Translations &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3): 151-75.
- Nkweni-Azeh, Blaise (1998) 'Term Banks', in Mona Baker (ed.)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49-51.
- Pohl, Esther (1989) 'Dictionaries as Tools for the Translator: A Critical Analysis of German-Italian Dictionaries', in Mary Snell-Hornby and Esther Pohl (eds.) *Translation and Lexicograph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129-37.
- Termmerman, Rita and Geentjens, Sancho (2010) 'Ontological Support for

Multilingual Domain-specific Translation Dictionaries’, in Marcel Thelen and Frieda Steuris (eds.) *Terminology in Everyday Life*,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137-46.

## 도록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미국 브루클린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Korean Art Collection in the Brooklyn Museum, New York, U.S.A.*』.
- \_\_\_\_\_ (2008) 『미국 필라델피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U.S.A.*』.
- \_\_\_\_\_ (2012)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U.S.A.*』.
- \_\_\_\_\_ (2012)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Korean Art Collection of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U.S.A.*』.
- 국립중앙박물관 (2007) 『*National Museum of Korea*』.

## 인터넷 사이트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한 모두 2013년 6월 검색)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외소재한국문화재 조사:

<http://www.nrich.go.kr/kr/info/art/aboard.jsp>

브리태니커 온라인 백과사전:

[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3715b](http://preview.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1s3715b)

호놀룰루 아카데미미술관: <http://www.honolulumuseum.org/>

## <분석 사전>

### 종이사전류

문화재청 (2000) 『(쉽게 고친) 문화재용어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시공테크 (2002) 『그림과 명칭으로 보는 한국의 문화유산』, 1, 2권, 성남: 시

공테크.

최규정 (2000) 『한국 역사·문화 용어 한영 용례』, 서울: 정문각.

한국국제교류재단 (2004) 『한국문화재용어사전 *Dictionary of Korean Art and Archaeology*』, Elizabeth, NJ/Seoul: Hollym.

### 온라인 사전류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한 모두 2013년 6월 검색)

국립중앙박물관 유물용어사전:

<http://www.museum.go.kr/program/relic/relicOrderList.jsp?menuID=001005003&langCodeCon=LC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용어시소러스 <http://thesaurus.history.go.kr/>.

덕성여대 박물관 용어사전: <http://museum.duksung.ac.kr/sch/term.cgi>.

전쟁기념관 유물용어사전:

[https://www.warmemo.or.kr/new/sub06/sub06\\_02\\_01\\_03.jsp](https://www.warmemo.or.kr/new/sub06/sub06_02_01_03.jsp).

조선대학교 박물관 용어사전: <http://museum.chosun.ac.kr/sch/term.cgi>.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영문 용어·용례사전 <http://www.aks.ac.kr/glossary>.

[Abstract]

**The Bilingual Terminology Dictionary as a Translation Aid:  
Focusing o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Park, Hyun-ju  
(Ewha Womans University)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Nkwenti-Azeh (1998: 249) wrote, "In specialized translation, it is well known that the search for interlingual equivalents is a time-consuming activity, occupying in some cases up to 60 per cent of total translator time." Terminology dictionaries including web-based databases can be a great asset for translators as they are a significant help in tackling such a daunting task. Hence it is important to know where and how to use the dictionaries which can be an effective translation aid, thereby reducing translation time and boosting translators' terminological competence.

Translating materials dealing with cultural heritage is no exception. As such, this paper introduces bilingual terminology dictionaries available for translation in the field of cultural heritage, and examines their effectiveness as translation aids.

It is encouraging that, as shown in this study, an increasing number of such dictionaries have been made available in the field since the 2000s. However, this paper also finds there is still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various respects: some of the dictionaries provide correspondences that have not taken into account the relation between cultural identity and translation and even reflect colonial views.

In terms of user-friendliness, the web-based dictionaries are seldom "easy and pleasant to use" due to terminological standardization and poor search

functions, and do not fully take advantage of their electronic nature (Kermerman 2001: 147). Hence, this paper makes suggestions that could be considered when publishing translation-oriented dictionaries in the future.

▶ Key Words: cultural heritage, bilingual dictionary, translation aid, terminological competence

박현주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과정

beakey72@hanmail.net

관심분야: 문화재번역, 한국학, 전문용어학, 사전학, 컴퓨터보조번역(CAT)

논문투고일: 2014년 4월 30일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14년 6월 16일